

奇昌德博士의 平生事業 韓國齒科醫師論文總聚 第1輯 發刊

高齡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연구의욕과 학문에 대한 정열적인 탐구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기창덕박사의 <한국치과의사논문총취> 제1집이 발간되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작업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을 실행해낸 기창덕 박사의 위업에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의 경과를 알아 보았다.

◎ 우선 이렇게 치과계에 꼭 필요한 책을 내놓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 책의 발행을 구상하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치과의사들이 학회에서나 잡지에 發表된 論文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46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우리말 齒科雜誌 <朝鮮齒界>와 그후에 나온 <朝鮮齒科醫報>를 사 들고부터 입니다. 이때는 學生時節이었지요, 그후 京城女子醫科大學에 근무하게 되면서 <朝鮮醫報>, <臨床醫學>을 계속 구독하게되어 醫學界의 雜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모으게 되었습니다.



잡지의 논문을 읽다보니 齒科界 선배들의 논문이 궁금하여 1927년 경부터의 韓國人齒科醫師들의 논문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으나 초록집을 만들기란 매우 어려워 포기 상태에 있을 무렵 6.25動亂이 발발하여 중단되고 따라서 노트도 일부 분실되어 잡지만을 간직하다 보니 1945년 이후의 것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을 가톨릭醫科大學에 근무하던 1964년에 1946~1962년분 論文目錄을 일차로 大韓齒科醫師協會誌 4(1)에 발표하였고 1963년도분은 大韓齒科醫師協會誌 5(1)에, 1964년도분은 最新醫學 8(10)에, 1965년도분은 現代醫學 5(2, 3)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러

나 이 論文目錄은 목록뿐이어서 내용을 알 수 없어 공부하는 후배들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고 원했습니다.

이 후배들의 말이 이 <韓國齒科醫師論文總聚>를 만들 각오를 세우게된 동기입니다.

◎ 資料를 수집하는 것만도 굉장히 방대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이 <論文總聚>에 수록된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齒科醫師들의 論文이 발표된 학술지나 논문집은 정해진 범위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있는곳 또는 손이 닿는곳에는 어디에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모든 의학관계학술지와 의학관계선진지까지도 齒科醫師論文의 게재 범위에 속함으로 200종이 넘는 이들 잡지를 모두 살펴야 했습니다.

참고로 齒科醫師의 論文이 게재되어 참고로한 학술지, 논문집, 의학잡지들을 소개하면 우선 1946년에 발간된 <朝鮮齒界>, 1967년의 <朝鮮齒科醫報>를 위시하여 大韓齒科醫師協會誌, 各市道支部의 齒科醫師會誌 14종, 齒科大學論文集 7종, 分科學會雜誌 19종, 齒科

...천박한 둔재인 편저자가 감히 이러한 치과의사 모두와 관련이 있는 <論文總聚>를 펴내게 되어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한권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학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어 앞서 발표된 연구내용에 중복되지 않게 또는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살펴 새로운 연구방향의 구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직 간절한 바람입니다. 내용의 오자나 한두편의 누락을 탓하지 말고 단 한가지라도 참고로 응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醫師團體會報 4종, 齒科界綜合雜誌 9종, 醫科大學論文集 18종, 齒科界研究所와 綜合病院의 論文集 12종, 軍醫務團雜誌 4종, 基礎醫學會雜誌 7종, 齒醫藥綜合雜誌 10종 등 107종이었습니다.

이들 雜誌를 모두 소장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齒科大學의 교수들로부터 결본을 얻은 것도있고 延世齒科大學의 이정석교수의 소장본도 빌려보았고 江陵의 김용선선배의 <치학>도 貸本해 보았습니다. 光州의 丁達秀회장은 한 권밖에 없는 <全南醫報>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가톨릭 醫科大學圖書室이나 國立中央圖書館의 신세를 덜 지게 되었지요

◎ <論文總聚>에 수록된 논문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 <論文總聚> 第一輯에 수록된 논문의 수는 모두 3,854편이 됩니다. 이들중에는 원저가 1,

993편이고 증례가 589편인데 이 원저와 증례에는 초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임상논문 1,109편과 163편의 증설에는 초록을 붙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 齒科醫師들의 논문을 원저와 증례, 임상논문, 증설로 나누어 정리한 셈입니다.

齒科醫師들의 연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세포생물학에서부터 공중위생, 대기의 오염까지에 이르는 첨단과학분야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齒科醫師論文으로 하여 口腔領域이니 齒科醫學이니 하는 국한된 범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總聚>라고하면 中國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모든 醫學誌書類에서 골라 모은 것이라는 뜻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齒科醫師들이 발표한 논문들이 1980년까지만해도 4,000편에 이르는데 그것을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꾸며 책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감히 그것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 치과계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 더불어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종적을 남기신 기창덕박사의 위업에 다시한번 敬意를 表하며 이책 <論文總聚>의 머리말에서 밝힌 소감을 소개한다.

『천박한 둔재인 편저자가 감히 이러한 치과의사 모두와 관련이 있는 <論文總聚>를 펴내게 되어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한권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학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어 앞서 발표된 연구내용에 중복되지 않게 또는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살펴 새로운 연구방향의 구상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직 간절한 바람입니다. 내용의 오자나 한두편의 누락을 탓하지 말고 단 한가지라도 참고로 응용해 주었으면 합니다.』